

마음이 마음에 게.

- 태국팀 12월 보고서

다솜에스스



룡리안 라짜쁘라짜누끼러 21 소개



이곳은 매홍손 지방의 왕립 학교예요. 약 900여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주로 소수 부족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이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아띠들은 3주 동안 한 명의 멘토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처음으로 혼자만의 수업을 진행했어요.

이제 모두들 라짜쁘라짜 학교로 떠나볼까요?^▼^



교장선생님



짜이 선생님
-남자들 홈스테이 선생님



와 선생님
-여자들 홈스테이 선생님



버이 선생님
-한국클럽 및 컴퓨터 선생님



우연 선생님
-마이 멘토 선생님



모스 선생님
-싸 멘토 선생님



큐 선생님
-몬 멘토 선생님



땀 선생님
-눈 멘토 선생님



중,고등학생들에게 자기소개, 팝송, 알파벳 무역 게임, 피요 게임, 타블로 게임 등 영어를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재미있는 게임을 접목하여 가르쳤어요.

혼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잘 호응해주어서 우리도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만의 수업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개인 활동



그 밖에 레크리에이션으로 눈치
게임, 3.6.9,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
십니까? 등의 게임도 했어요.

매 시간마다 수업 내용을 생각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빠(장아리 단원)는 초등학생
1-6학년 미술수업을 맡았어요.



모자이크, 발 만들기, 색칠 공
부,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장
래희망 그리기 등의 수업을 했
답니다! 아이들이 미술수업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영웅
영웅
영웅
영웅

새벽5시 아침운동 함께하기^^!



이 학교 아이들은 매일 새벽5시에 일어나서 아침운동을 해요. 아침운동에는
벼베기, 벼나르기 등의 재미있는 동작들도 있었답니다. 여자는 화요일과 수요일,
남자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운동을
했어요. 졸립고, 추웠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니 즐겁고 상쾌했어요^^!

기숙사 방문

이 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13개의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띠들은 저녁을 먹고 기숙사를 돌며 아이들과 함께 얘기도 하고 춤과 노래를 서로 불러주고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수업을 맡은 반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만날 수 있어서 더 좋았답니다^^





저녁식사 당번

원래는 감독이 취지였지만 아이들 밥도 담아주고, 얘기도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모으고 단체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간식 만들기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몇몇 아이들은 아띠들이 홈스테이 하는 집에서 간식 만드는 일을 해요. 아띠들은 종종 과자만드는걸 도와주는 척하면서 뺏어먹었죠 ^^; 아...도와주기도 하고 먹기도 했다네요..



국왕 탄생일

12월 5일은 국왕의 탄생일이예요. 오전에는 왕 노래 경연대회를 하고, 오후에는 벼베기, 마을 환경미화활동을 했어요. 저녁에는 모든 학생들이 모여 촛불 의식을 해요. 인디 두어이^^!





허이험 마을 방문

허이험이라는 마을은 고산족마을로서, 로얄 프로젝트로 커피농사를 주로 하고 있어요. 축제기간을 맞아 우리는 이곳을 방문해 선생님들과 축제준비를 돕고 즐기다 왔어요. 라와족도 알게 됐고 그들이 사는 마을도 방문했습니다.

매사리앙 축제

우리학교 밴드부와 댄스부가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매사리앙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축제

우리학교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날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18일날 크리스마스파티를 했답니다! 아띠들은 신이나서 사탕과 과자를 받아먹었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아니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루 학생 되기^^

아이들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아띠들은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루 동안 학생이 되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수업도 듣고,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기숙사에서 함께 잠도 잤어요. 오랜만에 10살이나 어러지니까 기분이 새로웠어요^^ 하루만큼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철 없이 수업시간에 잠도 자고, 과자도 먹고, 땡땡이도 치고 재밋는 하루를 보냈어요*_*!

수학여행!



중학교 1학년 아이들과 함께 치앙마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어요. 보타닉가든에서 예쁜 꽃들과 나무도 보고, 눈의 입수쇼도 봤어요^^아이폰 빠염! 다음날에는 치앙마이에 있는 북부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원에 다녀왔어요. 이곳에서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ㅠ_ㅠ 라짜쁘라짜 안녕!



크리스마스이브 파티!



오전에는 사오한YMCA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도와주고, 저녁에는 치앙마이YMCA에서 모든 스텝들과 함께 "카우보이&걸 파티"를 했어요^^
아띠들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답니다! 께



우리들만의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한국음식 대방
출! 라볶이와 브라우니, 호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맛있어!!!!

그리고 우리산타 Sa, Por의 깜짝선물까
지!! 너무너무 행복한 크리스마스였어요!
거기에 크레이지리본까지!와우!!!!
눈스프레이따위!!와우!!!

예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줘서 모두들
고마워요^^♥



느낀 점

Mon(성원) : 매랩에서의 슬픔을 안고 라차팻으로...



적응-그리고 이야기 나눔

일주일 정도는 새로운 아이들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정해진 루트대로 따라갔던 것 같다. Sa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수업 내용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내 수업을 어떻게 느낄까 생각하게 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해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보게 될수록 내가 누구다 여기에 왜 왔냐를 설명하는 것 보다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현재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하나의 주제를 말해주고 말하게 하고 그것을 나와 반 아이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대체적으로 많이 가졌다. 예를 든다면 각자의 좋아하는 색, 숫자, 놀이, 음악, 음식 등등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줄로 같이 생각 해보고 공유하였다. 무엇보다 나의 멘토 Q선생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이임 해주어서 내가 아이들과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나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

사랑- 라차팻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것이 한국인 때문인지 이국인 때문인지 내가 아이들과 잘 놀아주어서인지 그 아이들과 다르게 생겨서 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어쨌든 난 너무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고마웠다. 무엇보다 내게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중 떠날 무렵 나에게 한글과 영어로 편지를 써준 아이, 목도리를 짜준 아이, 조그마한 연인선물을 해준 아이 '짧은 순간이었지만 Mon의 학생으로 있어서 행복했다고 써준 아이' 모두 너무너무 감사했다.

-하루동안 라차팟 학생 되어보기

Mai의 제안으로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하게 된것같다. 학생들과 친해지길 바랬지만 어떻게 선생님이로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학생이 되어 같이 수업듣고 기숙사에서 잠도 자고 밥도 같이 먹을수 있다니 정말 좋은 생각 이었다. 그들과 함께 5시에 기상해서 체조, 청소, 수업시간, 점심, 취침.. 아이들도 나를 선생님이 아닌 친구로 받아 주었고 나 또한 그랬다. 수업시간에 몰래 그림도 그리고 장난도 치며 이경험으로 학생들의 일과를 이해했고 그들과 한 것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내가 배운 것들 ..

실수를 했을때 먼저 웃는법, 마주쳤을때 어색하다고 느껴지면 먼저 웃기, 화분에 물주는 법, 과자 만드는법, 밥 먹기전에 농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법, 슬퍼도 슬프지 않는 법, 안아주는 법, 그리고 이별에 대처하는 법

우리 서로서로 행복했던 시간들 오래 간직 하자꾸나.

더불어 건강하게 쑥쑥 자라고 먼 훗날 Mon이라는 좋은 친구 한명 있었다 라고 생각 하며 웃음 짓는 다면 더없이 좋겠구나. ^_ ^

From 라차팟의 영원한 친구 Mon



Mai(진숙) : 처음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부담감이었다. 일단 아이들 수도 너무 많았고 매랩에서보다 진짜 선생님이 되었다는 느낌이 강했다. 거기다가 팀원들이랑 떨어져서 혼자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더 부담이 되었던 것은 나 같은 경우 5기가 맡았던 반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도 5기를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더 잘하고 싶었고, 그만큼 노력도 많이 했다. 진짜 예뻐던 것은 매일매

일 각자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서로를 응원해주었던 것이다. 팀원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3주는 정말 길었을 것이다.

그리고 라오를 갔다 온 이후로 내가 처음 맡은 아이들이 이전에 만났던 매랩 아이들이었는데 라오의 아이들과는 느낌이 많이 달랐다. Mon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매랩 아이들에게서 라오의 아이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다. 똑같이 사랑하고 사랑 받았는데, 노력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을 새로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그들을 담을 마음의 자리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똑같았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난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준 학교가 랏파차다. 그래서 나에게 랏파차는 더 특별하다.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의 크기가 커져가는 느낌이다. 이제는 라오와 매랩, 그리고 랏파차의 경계가 무너져 그냥 다 내가 만났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계속 왜 매홍손에 있는 학교를 두 곳이나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가장 큰 점은 랏파차는 왕립학교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매랩과 달랐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생님이로 있

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까이 볼 수가 없고 이 학교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서 하루 동안 학생 되기를 제안했다. 학생이 되어서 아이들과 공부, 식사, 목욕, 잠자기 등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정말 13살이 된 것처럼 그들의 조금은 나이 많은 친구로서 하루를 지냈다. 그렇게 가까이 있음으로 그들의 커리큘럼을 이해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일 많이 시키는 이 학교를 싫어해보기도 했다. 물론 완전한 학생은 되지 못했기에 내가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에 따라 소외감을 느끼는 애들이 있을 까봐 랫파차에서의 생활 동안 가장 행동을 조심히 했던 날이기도 하다. 이제 밥 먹으면서, 씻으면서, 잠자면서 그들을 계속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하다.

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왕립학교라는 특수성과 관련해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였다. 멘토 선생님께서 이곳은 여러 이유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평등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도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듣고 나자, 내가 걸으로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배경에 대해 생각해볼게 되었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르게 사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을 생각하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경이 친구가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이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라온아띠, 즉 아시아의 친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내린 지금 현재의 결론은 친구란,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는 그 사람 그대로를 만나고 서로 사랑하되, 서로 함께 질문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을 탐색하는 시기에 있다.



Noon(하영) : 난 랫차팟에 갈 때 솔직히 말하면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땐 우리가 쌓아온 노하우로 버티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섯 명이 힘을 합치면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나의 수많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오래가지 못했다. 홀로 교실 앞에 서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노하우 같은 것들은 빈 말들에 불과했다.

인생 처음으로 본격적인 선생님이 되어버린 첫날, 아이들의 수많은 눈동자들 앞에서 나는 숨을 곳이 있기를 얼마나 바랬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약한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씩 아이들과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중 1, 그리고 고3의 영어과목을 실질적으로 '말았던'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교수법도 아니고 수업진도도 아니었다. 배우는 것을 '선택한' 아이들 이라기에는 아이들의 기본 지식이 너무 적었다. 심지어 몇몇은 영어 알파벳도 못 읽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 사실과 마주한 후 나에게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하는 것 보단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다는 열망. 이 학생들의 기억에 내가 남지 않더라도 내가 가르쳐 준 지식은 남겨 주고 싶다는 열망.

이런 열망이 나에게 왜 생겼을까. 한국에서는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던 내가 왜 이렇게 열성적으로 변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공은 순전히 라차팻의 사람들 때문이다. 라차팻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나에게 끝없이, 그리고 무한정으로 퍼부은 사랑. 학교를 걸어 다닐 때마다 쏟아지는 무수한 인사와 밝은 미소, 그리고 스스럼 없이 나에게 와서 말을 걸며 팔짱을 끼는 아이들. 내가 하는 수업이면 무조건 찬성해주는 멘토쌤까지 나는 여기서 지내면서 들은 칭찬의 횟수와 강도가 인생에서 들은 칭찬 횟수와 강도보다 많고 강하다고 확신한다. 그런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점점 내 안에 쌓여 나도 점점 변한 게 아닐까.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후회되는 것은 학생들과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전부 못해봤다는 것이다. 학생들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의 진심을 들어보는 것. 이런 지금 생각하면 높기만 한 목표들 뿐 아니라 계획만 했던 수업들까지. 못해본 것들이 너무 많다.

이 학교를 시작하면서 학교 설명을 들을 때 가장 나중에 한 말은 이 아이들 중에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다는 말이었다. 나중에 선생님이 한 말을 전해받기로는 이 학교는 행복한 아이들은 올 수 없는 학교라고 하였다. 하지만 지난 학교에서도, 지금 학교에서도 난 잘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지난 학교 아이들이나, 라파차 학교 아이들이나, 한국의 아이들과 다 똑같다. 3주란 너무 짧아서 내가 파악 못하는 것일까. 난 잘 모르겠다.

이 학교에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랑하는 법"이었다. 이 학교에서 난 사람들의 배경이나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런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들이 지금 내 앞에서 내 사랑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Sa(상현) :

사실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갔다.

전 마을인 매랩에서의 슬픔을 안고 갔지만 다 똑같은 아이들이란 생각을 했고 모두 친구처럼 대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처음 조회대에서 얼굴을 마주본 순간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예뻐 보였다. 처음에 했던

고민은 5기는 각자 맡은 과목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다 영어선생님으로 갔을까?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수업을 하든지 다 영어를 활용해서 수업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내린 결론은 영어를 목적이 아닌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생각이었다. 제일 중점을 두었던 것은 다른 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점을 보게 하려는 수업이었고 영어는 그 수단이었다. 어렸을 때 팝송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이 나 물어보니 아이들도 팝송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주력 수업으로 했다. 3개월간의 기타연습이 정말 뿌듯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아이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고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매랩 보다 더 행동이 조심스러웠다. 또한 전 마을 같은 경우는 다섯명에서 수업을 진행했지만 여기서는 나의 담당 학생들이 있었고 나로 인해 그 아이들이 작든 크든 인생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책임감이 느껴졌다. 학교생활의 중반부쯤에 와서 그 동안 했던 자기소개나 가족소개 등의 수업을 되새겨보며 낯선 이방인이 와서 겨우 4주라는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의 아픔을 건드리고 몹쓸 짓을 하진 않았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내린 결론은 매랩과 같았다.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대하자고. 그렇게 나는 아이들이 진짜 '마음'을 열어주길 바라면서 생활했던 것 같다.



또 스스로 한가지 변화한 점도 있다. 매랩에서는 아이들을 우리가 하는 활동에 그들을 다가오게 해서 그들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이 곳에서는 철저히 이방인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삶에 다가가려고 많이 고민했던 것 같다. 농구를 하더라도 우리의 룰이 아닌 그들의 룰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고 쉬는 시간이면 나무에 올라가 신맛이 나는 과일도 함께 따먹고 했다. 그 과정에서 팀원의 제안으로 일일 학생 돼보기를 통해 휴대폰도 아예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녹아 들어보려 했다. 과연 그렇게 하루 학생이 된 것을 통해 본 학생의 생활이 얼마나 될지 그들이 우릴 학생으로 받아들여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일텐 몰랐지만 잠시나마 15살의 나이로 돌아가 담배피고 연애를 몰래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나는 그들에게서 우리와 같은 점을 발견하고 있었다. 결론은 정말 행복했다. 출근 길과 퇴근 길에 외롭지 않았고, 한 번씩 신발을 물어가는 개도 있었고 새벽 2시에 닭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새벽에 신발 물어가는 개를 쫓아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다른' 사람이 그들과 '같은 점'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못 보다가 한 번씩 보고 그러는 친구처럼.

Por(아리)



처음 새 학교에 갔을 때는 우리도 전 기수처럼 각자의 특성에 맞는 과목을 배정 받아 가르칠 줄 알았다. 그런데 처음 들은 소리는 우리 모두가 영어를 담당할 것이라고 했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나에게서는 초등 미술 수업까지 주어졌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영어를 가르칠 수가 있을까란 생각부터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첫 날에 바로 담당 멘토 선생님에게 나는 영어 못해서 아마도 영어 수업은 무리일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래서인지 다른 팀원들과는 다르게 혼자서 초등학생 미술을 담당하게 되었다.

바로 전의 매립학교와 달리 랏파차에서는 혼자 수업을 진행해야 했고, 혼자서만 미술 수업을 맡았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컸다.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6학년 전부를 일주일에 두 번, 총 3~4시간씩 수업을 해야 했고 나이에별로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예전에 미술학원 강사로 일한 경력도 도움이 되어줄 것이란 작은 기대가 있었는데 아동 미술은 대입 미술과는 완전히 다른 수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매립 아이들이나 우리 나라 아이들과는 달리 다양한 미술 수업을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이것 저것 많은 것을 시도해보려고 과욕을 부린 감도 있었다.

처음엔 힘들고 어렵기만 했는데 하다가 보니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점점 부담감이 없어졌다. 아이들이 미술 수업을 너무나 좋아해주었고 또한 나를 잘 따르고 많이 사랑해주었다. 농담으로 팀원들에게 '장 따라(배우)'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내 평생에 받을 사랑과 관심을 한꺼번에 받는 기분이었다.

온전히 내 수업이란 생각에 아이들에게 다양한 수업을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없는 생각까지 모두 쥐어짜내면 항상 열악한 환경 때문에 미술 도구나 재료가 부족해서 번번히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다.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나 학교에 있는 것들로만 수업을 진행해야만 했고, 결국 교무실에 있는 대부분의 색지를 다 써버리게 되었다. 선생님들께는 조금 죄송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항상 수업 때마다 흥미를 가져주고 또 즐거워했던 것 같아서 정말 기뻐다.

이 곳 아이들은 다른 학년에서 한 수업은 자신들도 똑같이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어쩌다보니 거의 같은 커리큘럼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몸은 조금 편해졌지만 너무 나태해졌던 것은 아닌가 후회가 된다.

다른 팀원들은 중, 고등학생들의 수업을 맡아서 초등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나 또한 초등학생 수업만 맡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과는 만남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도 많은 아이들이 나를 좋아해주었고 길을 걸을 때나 학교에서 마주쳤을 때 항상 반갑게 인사를 해주어서 너무 고맙고 미안했다.

중1 아이들과 수학여행에 함께 갔을 때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라 걱정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1박2일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서로에게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헤어질 때 더 힘들었지만 정말 즐거웠고 행복했기 때문에 후회는 되지 않는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일부러 따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아서 어영부영 헤어진 감이 있었는데,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은 정말 마지막이란 느낌이 강해서 여자아이들 몇몇이 울음을 터트렸다. 어떻게 달래주어야 할지를 몰라 많이 당황했고 또 마음이 아팠다.

그 아이들이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만 우릴 기억했으면 한다.

부록

달리는 배썩 안에서..

(배썩 : 2등석 버스)



여행 1일째 - 치앙마이 대학교

치앙마이 대학교에서는 무료 셔틀 버스도 타고 젊음의 거리를 거닐었어요.

여행2일째 - 수코타이 역사공원

태국 최초의 왕조인 수코타이의 역사 공원에 가보았어요. 사진으로 보던 것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했어요. 한국인들도 많이 만났어요.





여행 3,4일째 - 깐짜나부리 (콰이강의 다리)

방콕 교외에 위치한 깐짜나부리에 가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워진 콰이강의 다리의 흔적을 보았어요.



여행 4일째 - 카오산 로드

배낭 여행자들의 로망인 카오산로드에 과도하게 부푼 가슴을 안고 갔지만,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가난한 배낭 여행자들의 안식처는 아니었어요.



여행 5일째 - 씨암 스퀘어

방콕 최대의 쇼핑지인 씨암 스퀘어에 발도장을 찍었어요.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았어요.ㅠ_ㅠ

여행 6일째 - 왕궁



왕궁은 가격이 올라서 입장료가 400B에
요. 슬리퍼는 괜찮지만 반바지는 안돼요.
에메랄드로 만든 불상도 실제로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 촬영은 안돼요.
그리고 근위대 교대식이... 흥미로웠어
요. 근위병과 셀카를 찍는 재미가 쏠쏠하
답니다^^ 그분이 카메라에 눈을 맞춰주
었어요. 웃어주기도 해요!^^



여행 7,8일째 - 파타야 (꼬란)

태국어로 꼬는 섬을 뜻해요. 처음으로 보는 바다여서 아띠들은 신이 났어요! 그러나 기대했던 해산물은 너무 비싸서 먹지 못했어요.TTT 괜찮아요. 꼬라파오무(돼지고기덮밥)가 있으니깐요!





여행 10일째 - 끄라비 (야시장, 수상레스토랑)

이곳은 가난한 배낭 여행자의 안식처인 끄라비예요.

수상레스토랑에 가서 이제까지 모은 공용 돈으로 맛있는 해산물을 맛보았어요.^^



여행 11일째 - 끄라비 (라일레이)



예정보다 끄라비에 오래 머물게 되어서
계획에 없던 라일레이에 가게 되었어요.
작긴 했지만 사람도 없고 정말 예뻐요.
특히 바다 위에서 본 일몰은 최고였답니
다.^^



여행 12일째 - 피피섬 투어



여행 13일째 - 푸켓 (빠통비치, 정실론)

기대하고 기대하던 푸켓에 입성했어요! 제일 유명한 빠통 비치에 갔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이제까지 본 바다 중에 물도 가장 맑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운대보단 나아요.^^

해양 스포츠도 즐기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 빠염..ㅠ_ㅠ 그래서 우리들끼리의 시간을 가졌어요.

푸켓에서 가장 유명하다던 정실론이라는 쇼핑 센터에 갔어요.



집으로*_*!

2주일에 걸친 여정이 2시간 만에 마무리 되었어요. 이제 또 열심히 할 거예요! 쑤쑤!

이번 달 그린 캠페인 양치컵은 **55%**를 달성했어요ㅠㅠ

플라스틱컵 사용량 줄이기는 **0%**입니다ㅠㅠ 마지막 달은 잘 할게요.



쌩유^.^!!!